

도자 기술에 대한 오주(五洲) 이규경(李圭景)의 이용후생적 관점 고찰

김방울

I. 머리말

金芳蔚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임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과 박사
서지학

오주(五洲) 이규경(李圭景, 1788~?)이 저술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다양한 사물에 대한 변증론이 들어 있다. 그가 구사한 변증법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역대 고금의 다양한 기록을 인용하고, 그 중간이나 말미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는 방식을 일컫는다. 대부분은 충실히 전거를 밝혀 놓았으나, 일부 기사에서는 전거를 누락한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이규경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용 부분과 주장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물론 타인의 기사를 인용할 때는 일정 부분 그 기사에 동조하기 때문이겠지만, 그 내용이 곧 저자의 생각과 주장이라고 일치시키기 어렵다.

60책에 달하는 거질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도자 관련 자료들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장남원과 방병선이 일부를 다루었다.¹ 본 논문에서는 도자의 범위를

* 필자의 최근 논저: 「장서인(藏書印)을 통해 본 모의(毛裃) 교정본 『고려도경』과 건도본 『고려도경』의 관계」, 『한국전통문화연구』25, 2020; 「『五洲書種博物考辨』의 典據 탐색-「金類」를 중심으로-」, 『民族文化』55, 2020; 「고려시대 보살계 수계의식을 위한 경전, 보물 제1407호 『범망경보살계본(梵網經菩薩戒本)』 및 수보살계법(受菩薩戒法)의 재조명」, 『무형유산』9, 2020.

1 장남원, 「조선후기 이규경의 도자 인식: 『오주연문장전산고』의 「고금자요변증설」과 「화동도자변증설」을

조금 확장해서 기와와 벽돌까지 다뤄보고자 한다. 도자의 본질은 흙이 불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어떤 기물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쓰임새에 있다. 따라서 그릇과 함께 실생활에 가장 쓰임새가 많은 기와와 벽돌을 같이 다루고자 한다. 기와와 벽돌 역시 불길 속에서 새로운 유용성을 획득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도자기의 특징은 실용적이지 않은 기물이 없다는 점이다. 고려청자나 일본 도자기에는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술품으로서 바라보기 위한 소위 장식 품에 속한 것이 있다. 처음부터 장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도자기에서는 그런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² 이규경을 비롯한 조선후기의 실학자들이 도자기를 바라봤던 시각도 그렇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건으로서 도자기를 바라봤고, 어떻게 하면 좀더 잘 만들어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관점을 ‘이용후생(利用厚生)’이라고 한다.

이규경 이전의 실학자들은 이러한 이용후생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우선 박제가는 『북학의(北學議)』 ‘자서(自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절구를 한 번 만들자 천하에는 껍질 있는 곡식을 먹는 사람이 없어졌고, 신발을 한 번 만드니 천하에는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없어졌으며, 배와 수레를 한 번 만들자 천하의 물건들이 아무리 험난해도 유통되지 않는 곳이 없어졌다. 이용과 후생은 한 가지라도 닦이지 못하면 위로 정덕(正德)을 해친다.”³ 편리한 도구가 삶을 변화시키고 그러한 삶의 변화가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목표는 정덕의 추구이지만, 정덕의 완성을 위해서는 먼저 이용과 후생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실제와 기록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실제 작업은 장인들이 했지만 그들은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 기록은 지식인들의 몫이었다. 그것도 아주 소수의 지식인만이 수행했다. 그중 가장 방대한 분량의 저술을 남긴 학자가 이규경이다. 본문에서는 이규경이 남긴 도자 제작 기술 관련 기사들을 중심으로, 거기서 인용과 주장을 분리해낸 다음 이규경의 생각에 주목하여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 필요하다면 다른 실학자들의 견해도 같이 언급할 것이다.

중심으로, 『미술사논단』6(1998), pp.205-232; 방병선, 『조선후기 백자 연구』(일지사, 2009), pp.195-201.

2 아사키와 다쿠미, 심우성 옮김, 『조선의 소반·조선도자명고』(학고재, 1996), p.134.

3 박제가, 정민 외 옮김, 『정유각집』하(돌베개, 2010), pp.127-128.

II. 도기에 대한 관점

이규경의 도기에 대한 관점은 『오주연문장전산고』 「인사편(人事篇)」 ‘화동도요변증설(華東陶窯辨證說)’에서 볼 수 있다. 이 기사에서는 먼저 도토(陶土)를 설명한 다음에 도기를 변증하는 방식을 택한다. 중국에서는 도토를 검은 흙인 오니(烏泥)라고 하는데, 소주(蘇州)에서는 누런 흙인 황훈(黃壚)이 난다고 중국의 상황을 언급한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도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나라는 곳곳에서 석간주토(石間朱土), 오자토(烏瓷土), 반蒼반黃도토(半蒼半黃陶土), 유향도토(黝黃陶土), 황도토(黃陶土), 회백도토(灰白陶土), 홍흑도토(紅黑陶土)가 난다. 오자도토는 관동 철원부에서 나는데 매우 검고 매끄럽다. 홍도토는 호남 전주부와 고산현(高山縣) 등지에서 난다. 북관 육진(六鎭)의 여러 마을과 단천(端川)에서 나는 도토는 여러 색깔을 가지고 있다. 흙의 성질이 조밀하고 좋아 번조(燔造)하기에는 전국에서 첫손가락에 꼽을 만하다. 관서 의주부에서 나는 흙으로 만든 질나발의 제작 모양은 정묘하나 매우 거칠고 유약을 바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채색을 했는데 쉽게 깨지는 것이 흠이다.⁴

조선에서도 다양한 색깔의 도토가 생산된다는 사실을 언급한 후, 대표적인 산출지와 거기서 생산되는 도토의 특징을 정리한다. 검은 흙인 오자토는 철원에서, 붉은 흙인 홍도토는 전주와 완주 등지에서 산출되며, 함경도에서 나는 도토는 다양한 색깔을 지니고 있다고 밝힌다. 이들 중 함경도에서 산출되는 도토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한다. 의주에서 산출되는 흙으로 만든 질나발의 모양은 정교하나 쉽게 깨진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제작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의주에서 나는 도토에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으로 중국의 도기 제작 방법을 설명한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중국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 첫 단락에 “중국 도기는 물레질을 한 후 바람이 없는 곳에 깊숙이 넣

4 “我東陶土 在處有之 而有石間朱土, 烏瓷土 半蒼半黃陶土 黝黃陶土 黃陶土 灰白陶土 紅黑陶土 烏瓷陶土 關東鐵原府所產 甚烏且膩 紅陶產於湖南全州府及高山縣等處 北關六鎭郡邑及端川 陶土有諸色 土性精緻且善 燔造可甲一國 關西義州府出土壚子 製樣精妙 而甚鬆脆且不銹 然亦設彩 易破是欠”, 『오주연문장전산고』 ‘화동도요변증설’, 한국고전종합 DB 고전원문 수록본.

어두고 바짝 마르기를 기다린다. 도기와 옹기 대여섯 그릇을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틈이 없게 꼭 막는다. 그래야 비로소 깨지거나 기름때가 생길 걱정이 적어진다. 불이 과하면 너무 익어 보기에 아름답지 않고, 불이 모자라면 덜 익어 모래흙의 기운이 남는다”⁵라고 적는다. 이것은 주고기(周高起)의 『양선명호계(陽羨茗壺系)』에 나오는 내용인데, 정작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는 그 출처를 밝혀 놓지 않았다. 뒤를 이어서 왕사정(王士禎)의 『지북우담(池北偶談)』, 왕작(王焯)과 장조(張潮)의 『단쾌총서(檀几叢書)』, 주고기의 『양선명호계』, 진계유(陳繼儒)의 『니고록(妮古錄)』, 여종옥(呂種玉)의 『언청(言鯖)』, 방이지(方以智)의 『물리소지(物理小識)』의 기사를 인용한다.

이들 기사를 인용한 이유는 징니법(澄泥法)을 소개하기 위해서다. 징니에 대해서는 『성호사설(星湖僊說)』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지금의 수비(水飛)와 같은 뜻이다. 비록 많은 물이 아닐지라도 진흙을 비단 주머니에 넣어 열 번 정도 수비하는 과정을 거치면 숙성된 진흙이 된다. 또 조금 마른 다음에 다시 물을 섞어 흙을 이긴다. 이렇게 대여섯 차례를 한 후 구워서 기와를 만들면 반드시 좋은 재료가 될 것이다.”⁶ 즉 징니는 진흙에서 이물질이나 굵은 입자를 걸러내어 미세하고 고운 태토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그리고 『물리소지』에서는 흙에다 구리 가루를 섞어서 만드는 방법, 금모래를 함유한 흙으로 만드는 방법, 아연을 섞은 흙으로 만드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소성 기법에 대해서는 중견요법(重甄窯法)이 소개된다. 이것은 흙을 두 번 구워 매우 견고한 도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황금 색깔의 곡식 낱알과 같은 불로 굽는데, 곡물 겨를 쌓고 봉한 다음 굽는다.”⁷라고 구체적인 불 때기 방법을 설명한다. 징니법을 통해 도토를 정미하게 걸러내고, 이 흙으로 기형을 만든 다음, 중견요법을 통해 단단한 도기를 구워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중국 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총평한다. “중국에서는 비록 도기일지라도 그 제작법이 정교하고 오묘하여 어떤 것들은 현옥(玄玉)이나 오금(烏金)과 경쟁한다.”⁸ 이는 조선 도기의 제작 상황을 염두에 둔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5 “中原陶器 過鏵後 幽閉無風處 以候極燥 乃以陶甕皮五六器 封閉不隙 始鮮欠裂射油之患 過火則老不美觀 欠火則釋沙土氣”, 『오주연문장전산고』 ‘화동도요변증설’.
 6 “澄泥者 如今水飛之意 雖非分水 絹袋十過水飛 為熟泥 待稍乾 更和水埴埴 如是復五六過 然後陶以為瓦 其必成美材矣”, 『성호사설』, 『만물문(萬物門)』, 『징니연(澄泥硯)』.
 7 “以金粟火 卽穀糠堆封而燒之也”, 『오주연문장전산고』 ‘화동도요변증설’.
 8 “中原則雖陶器 陶法精妙 故或與玄玉烏金爭”, 『오주연문장전산고』 ‘화동도요변증설’.

미 서유구는 “우리나라 공업제도 가운데 도기와 자기 만드는 일이 가장 천한 기술이다. 대개 가마 만드는 법과 굽는 법에서 중국의 제도를 본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⁹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도기에서 광택과 윤기가 나게 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토에 황단(黃丹)과 호도유(胡桃油)를 넣고 밀가루처럼 주무르면 오래될 수록 윤기가 난다. 항상 잿물에 삶지 아니한 베 조각으로 문지르면 사람을 비출 정도로 빛이 난다. 오동기름을 사용하면 도자에서 광택이 난다.”¹⁰

III. 벽돌과 기와에 대한 관점

1. 벽돌

벽돌과 기와에 대한 이규경의 관점은 『오주연문장전산고』 「인사편」의 ‘변벽변증설(辨壁辨證說)’과 ‘화동와류변증설(華東瓦類辨證說)’을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서유구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섬용지(贍用志)」의 서문에서 조선의 벽돌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한다. “벽돌을 굽는 제도에 대해 말하자면 까마득하여 아는 것이 없다. 따라서 건물을 세우면 기와 조각과 자갈을 섞어서 허공을 받치게 하므로 짝이 맞지 않고, 엉성하게 빈틈이 많아서 조금도 똑바른 것이 없다.”¹¹ 벽돌을 사용하지 않는 당시 조선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그 이면에서는 규격화된 벽돌 제조를 통해 훨씬 튼튼하고 내구성 있는 건축이 가능함을 역설한다. 「섬용지」에는 기와 굽는 법, 벽돌 굽는 법, 가마 제도, 기와와 벽돌을 고르는 법, 새 벽돌의 건조한 성질을 제거하는 법, 계를 조직하여 기와를 굽는 법, 벽돌의 이익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규경은 벽돌과 기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주로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와 박제가의 『북학의』를 인용한다. 이 내용들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어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이러한 『열하일기』의 내용에 대해 유득공은 그의 『열하

9 서유구,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임원경제지- 섬용지』3 (풍석문화재단 ·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17), p.312.

10 “陶土中入黃丹胡桃油 搜之如麪 則攸久而滋潤 常以生布片磨之 則光可鑑人矣 瓷陶生光潤 用桐子油”, 『오주연문장전산고』 ‘화동도요변증설’.

11 서유구, 안대회 편역, 『산수간에 집을 짓고』 (돌베개, 2006), p.194.

일기서(熱河日記序)에서 “성곽과 궁실에 대한 묘사라든지, 농사짓고 목축하며 도자기를 굽고 쇠를 다루는 내용도 그 일체가 기구를 편리하게 사용하여 민생을 두텁게 하자는 이용후생의 길이 되는 내용”¹²이라고 평한다.

우선 이규경은 벽돌의 용도와 서술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조금 길지만 전문을 신는다.

전(顛)은 벽돌이다. 궁실(宮室)과 성첩(城堞)과 대지(臺址)를 만든다. 중국은 전적으로 이것에 의지한다. 우리나라 또한 구워 만드나, 대체로 중국만 못하다. 근래 박지원, 박제가 두 분이 구워 만들자고 역설했다. 『열하일기』와 『북학의』에 보인다. 그 말은 채용할 만한데, 어느 누구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 나 또한 이에 뜻을 두고 공사(公私)의 큰 쓰임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다. 일찍이 『천공개물(天工開物)』에서 가마를 짓고 구워 내는 방법을 깊이 터득했다. 두 분이 기록한 것과 대략 동일했다. 오비학사(五費學士) 서유구 또한 한 번도 시도해 보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기고, 그가 지은 『임원십육지』에 『번요도설(番窯圖說)』을 수록해 놓았다. 우리나라의 벽돌담은 경기 여주목 신록사의 강가에 있다. 그래서 벽사(壁寺)라고 부른다. 벽돌성은 경기 화성에 있다. 경기 화성부 팔달문 안 응성은 정조 때 중국의 성곽제도를 모방하여 벽돌을 구워 축조한 것이다. 내가 여러 설명을 간략히 취합하여 망각에 대비하고자 한다.¹³

기본적으로는 『천공개물』을 바탕으로 하고 『열하일기』와 『북학의』의 내용을 취합하여 내용을 정리한다고 밝힌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도 비슷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조선에서 벽돌을 이용한 건축물인 신록사 전탑과 수원 화성의 존재를 밝힌다. 즉 조선에서도 얼마든지 벽돌을 이용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보인다. 『천공개물』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 16회 인용된 책이다. 송응성(宋應星)에 의해 저술되어 1637년 처음으로 출간되었고, 1771년에는 일본에서

12 박지원, 김혈조 옮김, 『열하일기』1 (돌베개, 2011), p.23.

13 “顛卽甃也 爲宮室城堞臺址 中國則專靠於此 我東亦番造 大不如中原 近世朴燕巖 朴貞蕤兩公 力言其可番 見于熱河日記 北學議 其說可采用 而無人留心 不佞亦有志於此 以爲公私之大用者也 嘗於天工開物 深得其築窯燒出之法 蓋與二公所記略同 五費學士徐公 亦恨不得一試 載其番窯圖說 於所撰林園十六志中 我東甃塔 在畿邑驪州牧神勒寺江岸 故號壁寺 甃城在畿甸華城 在畿甸華城府八達門內甃城 正廟朝倣中原城制 而燒甃築之 愚略取諸說 以備遺亡”, 『오주연문장전산고』 ‘번벽변증설’.

도 간행되었다. 조선에서도 18세기 이후 널리 읽혔지만 결국 간행되지는 못했다.¹⁴
벽돌 제작과 가마 사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피력한다.

근래 우리나라에서 혹 벽돌을 굽는 사람들이 있다. 가마 사용법을 몰라 곤혹스러워 하는데, 꼭 소나무를 써서 맹렬한 불길로 굽는다. 그리고 소성 후 가마 정수리에 물을 붓는 묘미를 알지 못한다. 벽돌이 항상 단단하게 건조되어 재가 달라붙지 못한다. 『친공개물』을 살펴보니, 벽돌 모양을 만든 후 얇게 편을 뜯 때 철삿줄을 맨 활로 밀어 나가면 위가 곧 평평해진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것은 찰지게 이긴 흙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지금 묽은 진흙을 사용하면 번거롭게 손수 활로 밀어나가지 않아도 된다. 매우 많은 수고가 덜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채벽법(彩壁法)에 관심이 있는 자가 먼저 이 방법을 써서 벽돌 수백 편을 번조할 때 창을 내는 방식을 사용하면 그 이로움을 알 수 있다.¹⁵

우선 가마 사용법에 대해 불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무조건 강렬한 불길이 양질의 벽돌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조선에서는 주로 소나무를 썼는데 소나무에는 송진이 있어 불길이 강렬했다. 따라서 가마 안의 온도 조절이 쉽지 않았다. 가마 안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서는 가마 정수리에 옹덩이를 파서 물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가마 옆에 조그만 창을 내어 가마 안의 온도를 살폈다. 조선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면 훨씬 양질의 벽돌을 구워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벽돌을 뜯 때 철삿줄로 맨 활을 이용하여 벽돌의 층을 분리해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수월한 방법을 소개한다. 찰진 흙이 아니라 묽은 흙을 이용하면 굳이 활로 밀어나가며 벽돌 편을 뜯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즉 여기서는 캐스팅 방식을 권장한다.

14 박성래, 「16세기 중국 기술서적 『친공개물』 펴낸 송응성」, 『과학과 기술』31:4(1998), pp.72-74.

15 “近世我東 或有燒壁者 苦患窟不知法 必用松肱烈火 又無燒訖灌頂之妙 壁恒燥硬 不受灰黏 按天工開物 搗壁作片時 用鐵弦弓趕 上即平滿 此用稠也 今用稀泥 故不煩手築弓趕 可謂省勞萬萬也 彩壁法有心者 先作此法 試燔數百片 用於築塚之制 則可知其利矣”, 『오주연문장전산고』 ‘번벽변증설’.

2. 기와

기와에 있어서는 청기와, 자기 기와, 유리 기와 등 다양한 기와를 소개한다. 우선 조선에서 왜 청기와 제작법이 사라지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설명한다.

중국의 전각에는 황색 유리와와 오색 유리와를 덮는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전각에 만 청기와를 덮는다. 남관왕묘와 영은문(迎恩門)에 덮고, 다른 곳에는 덮을 수 없다. 번조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국초에 청기와 장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 동생이 배우기를 원했으나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전수해 주마.”라고 말했다. 결국 병에 걸려서는 말하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그러므로 전수되지 못했다. 지금 세상에서 숨기고 말하지 않으면서 자기 이익만을 취하는 자를 청와장(靑瓦匠)이라고 부른다. 몇 해 전 영은문이 무너졌을 때 청기와가 산산조각 났는데, 보통 기와로 덮었다.¹⁶

하나의 전각이란 창덕궁 선정전(宣政殿)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에도 선정전은 창덕궁에서 유일한 청기와 건물이다. 그리고 남관왕묘와 영은문에도 청기와를 덮었던 모양이다. 남관왕묘는 임진왜란 때 최초로 남대문 밖에 건립된 관우 사당이고, 영은문은 중국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세워진 문이다. 이들 건물에는 중국을 사대하는 차원에서 청기와를 덮었던 듯 보인다. 청기와 제작법이 단절된 이유를 전설 같은 이야기로 설명하는데, 사실은 기술과 장인을 천시하는 풍조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덕무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협주기(峽舟記)」에 나오는 청기와 제작법을 소개한다. “경기 광주 봉안역에서 황단이 나는데, 원나라 때 관리를 두어 채굴했다. 청기와를 구울 때 이것을 넣고 유약을 만들면 기와 색깔이 밝고 투명해진다.”¹⁷ 이어서 회청을 이용한 청기와 제작법을 소개한다. “청기와는 날기와 위에 백

16 “中原殿閣 覆黃琉璃瓦及五色琉璃瓦 我東一殿只覆靑燔瓦 南關廟及迎恩門覆之 他不得蓋 不解燔造也 世傳國初 有靑瓦工一人 祕不示人 其弟願學 不教曰我臨終傳之 及病 不得言而死 故無傳 今俗言祕不語而自專利者 稱靑瓦匠 頃年迎恩門圯 靑瓦破碎 則用常瓦庇蓋”, 『오주연문장전산고』 ‘화동와류변증설’.

17 “京畿廣州奉安驛 產黃丹 元置官採之 燔靑瓦 合此爲藥 則瓦色明瑩”, 『오주연문장전산고』 ‘화동와류변증설’.

토 잿물을 바른 다음 그 위에 회청을 칠하고 다시 미세하게 잿물을 발라 구워낸 것이다. 비취색은 다시 특별한 유약을 바른 다음 구워낸 것이다. 비취색은 연경의 시장이나 대마도, 혹은 왜관에 물어보면 알 수 있고 또 사올 수 있다.”¹⁸ 청기와는 날기와 위에 백토 잿물과 회청 그리고 잿물을 3단으로 발라 구워낼 수 있다고 그 방법을 제시한다. 비취색을 만들 때는 유약이 중요한데, 비취색 안료는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을 밝힌다.

이규경은 자기 기와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오자(烏瓷)와 백자(白瓷)로 기와를 만들어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오자와 백자로 기와를 만들어 구워내면, 반드시 반들반들하여 바람과 비에 마모될 염려가 없어 여러 세대를 견딜 수 있다.”¹⁹ 오자 기와와 백자 기와의 제작 방법에 대해서는 “도토로 날기와를 만든 다음 오자와 백자 유약을 발라 구워낸다면 또한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다”²⁰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규경은 유리 기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전에 중국 관련 기사를 소개한다. “북경에서는 양덕문(陽德門)과 등풍문(登豐門)에서 유리 벽돌과 기와를 구워낸다. 감자토(紺子土)와 마아초(馬牙硝)에다 흑연을 넣어서 구워낸다. 남경 보은사(報恩寺)의 유리탑은 오색을 갖추었는데, 방산(方山) 언덕 유리문(琉璃門)의 백토로 만든 것이다.”²¹ 여기서 이 기사의 전거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유리변증설(琉璃辨證說)’에도 나오는데, 그 전거를 『물리소지』라고 밝힌다.

『물리소지』는 방이지의 저술로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가장 많은 221회 인용된 책이다. 방이지는 안휘 동성현(桐城縣) 출신으로 명말 청초의 문학자, 계몽사상가, 과학자였다. 그는 역학과 실학적 학문정신을 중심으로 한 가학의 영향과 생애적인 박물학적 관심과 호기심, 물리에 대한 탐구욕, 서학과의 만남, 불교와 도가사상 등으로 자신의 사상을 형성한 인물이다.²² 『물리소지』는 과학을 다룬 일종의 백과전서적 저작으로 1644년에 처음 편찬되었다. 이덕무는 명말 청초 중국 학인들의 전기를

18 “靑瓦則瓦坯上 刷白土泐水 其上塗回靑 更微刷泐水燻者 翠色者 更有別藥 刷燻而成者 翠色 問于燕市馬島倭館 則可知又可購來”, 『오주연문장전산고』 ‘화동와류변증설’.

19 “余意以烏白二瓷 製瓦燻出 則必滋潤 而無風磨雨蝕之慮 可歷世代矣”, 『오주연문장전산고』 ‘화동와류변증설’.

20 “如欲用烏白瓷瓦 以陶作坯瓦 用烏白二瓷銹水燻出 亦不費財也”, 『오주연문장전산고』 ‘화동와류변증설’.

21 “北京燒琉璃磚瓦 在陽德門登豐門 用紺子土馬牙硝 入黑鉛燒成 南京報恩寺琉璃塔 中具五色 則用方山岡琉璃門坭土所作”, 『오주연문장전산고』 ‘화동와류변증설’.

22 임종수, 「方以智의 自然觀: 『物理小識』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4

수록한 『청장관전서』 「뇌뢰낙락서(磊磊落落書)」에서 방이지의 인물됨과 학문에 대해 서술했고 『물리소지』의 구절들을 인용했다. 그리고 성해응도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 「황명유민전(皇明遺民傳)」에서 방이지 일가를 다루었다. 아마 방이지의 『물리소지』를 본격적으로 활용한 것은 이덕무와 성해응 등 최신 서적에 민감한 실학자들이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오주의 시대에 와서 비로소 박학의 주 텍스트로 활용되었다.²³

뒤이어서 유리 기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다. “유리 기와라는 것은 맑은 유리 유약이고 안은 보통 기와이다. 백토, 고령토, 마아초(馬牙硝), 흑연을 가져다 가루로 만든 다음 젓물에 넣어 날기와 위에 바르고 구워낸다. 원나라 때 들어온 황단이라는 것은 유리 위에 이것을 발라 구워내면 호박색이 난다. 이것이 황유리 기와이다.”²⁴ 백토, 고령토, 마아초, 흑연을 이용한 특수 유리 유약 제조법과 황단 유약을 이용한 황유리 기와 제작법을 설명한다.

IV. 자기에 대한 관점

1. 동아시아 3국 자기에 대한 비평

이규경은 ‘고금자요변증설(古今瓷窯辨證說)’에서 동아시아 3국 자기의 역사와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우선 중국 자기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중국 문헌을 인용한다. 왕세정(王世貞)의 『완위여편(宛委餘編)』, 왕세무(王世懋)의 『규천외승(窺天外乘)』과 『이유위담(二酉委譚)』, 주량공(周亮工)의 『민소기(閩小紀)』, 주이준(朱彝尊)의 『폭서정집(曝書亭集)』에 나오는 「감구집서(感舊集序)」의 기사들을 발췌하여 나열한다.

우리나라 자기의 역사에 대해서는 충렬왕 때 원나라에 금화자기(金畫甕器)를 바쳤다는 『고려사』의 기록, 김종직의 『점필재집(佔畢齋集)』 「이준록(彝尊錄)」에 나오는 자기 아버지 김숙자가 장인들에게 흙을 아홉 번 체질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는

23 김채식,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p.157-158.

24 “其曰琉璃瓦者 外以琉璃泐水 內以常瓦坯 取白墻坭子土馬牙硝黑鉛 作末 和泐水 刷坯上燻出 元時入黃丹云者 琉璃上塗黃丹炙之 則成琥珀色 此黃琉璃瓦也”, 『오주연문장전산고』 「화동외류변증설」.

내용, 『성호사설』 「만물문」에 나오는 ‘비색자기(秘色磁器)’ 기사, 그리고 오성흠(吳省欽)의 『백화전고(白華前稿)』에 나오는 ‘논자절구(論瓷絕句)’라는 시를 인용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평을 가하지 않고 그냥 기사만을 나열했다. 이어서 당시 조선 자기의 제작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 왕조에 들어 관요는 단지 한 곳이 있는데 분원(分院)이라고 한다. 사옹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경기 광주부에 가마를 열었는데, 서울로부터 거리가 70리이다. 강과 가까운 곳에 설치했다. 매년 사옹원에서 독자적으로 낭관을 파견하여 번조와 진상을 감독케 했다. 최상품은 갑번(甲燔)이라고 하는데, 매우 깨끗하고 희다. 여기에 쓰이는 백토는 영남의 진주와 곤양, 관동의 춘천과 양구에서 실어 오는데, 곤양의 흙이 최고이다. 그릇의 태토는 경기 과천현 관악산의 백토로 태를 만들면 그릇이 매우 견고하고 치밀하다고 한다. 청색 안료를 쓸 경우에는 회청(回靑)을 사용한다. 서울 사람들이 사사로이 연경 시장에서 구입해 와서 도자 장인들에게 판다. 1돈중(錢重)의 무게가 옛날에는 금과 같았으나 근래에는 점점 내려가 50문으로 평가된다. 색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다. 사이사이에 사용하는 반홍(鑾紅)은 녹반(綠鑾)을 가열한 것인데, 검은 자줏빛이 아름답지 않다. 다른 안료는 사용할 수 없다. 듣건대 중국의 자기 안료는 모두 18종이라고 한다. 유본학(柳本學)이 일찍이 말하기를 “이전에 자하 신위(申緯)의 말을 들었는데 중국의 자기는 안료를 칠하고 유약을 바르는데 만약 불이 매우 맹렬하면 안료도 따라서 날아가 버린다. 따라서 가마 창에 구멍을 내어 자주 엿본다. 살짝 익을 때를 기다려 바로 꺼낸다.”라고 한다. 과연 그런지는 모르겠다. 정조 때 채색자기 번조를 금지한 후 백자 위에 꽃과 화초를 양각하여 구워냈다. 오래지 않아 다시 청색 안료를 사용하게 되었다.²⁵

여기에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광주 분원에서 백자를 만들 때 쓰이는 백

25 “入我朝 官窑只有一所 號曰分院 管於廚院 開窑於京畿廣州府 距王都七十里地 近江而設 每年自廚院 自辟遣郎官 監燔進上 最上品曰甲燔 甚潔白 其所用白土 自嶺南晉州昆陽 關東春川楊口輸納 而昆陽爲最 而器胎則京畿果川縣冠岳山白土爲胎 器甚堅緻云 亦設靑彩 以回靑爲之 京人私買燕市 賣於窑工 每錢重 古則如金 近則漸下 品五十文 色不甚鮮 間用鑾紅 卽煨綠鑾者 紫黑不佳 他彩則不能聞 聞中原窑彩 凡十八種 柳陰竹問菴本學嘗言 曾聞申侍郎紫霞緯言 則中國窑器 設彩有藥 而若入火太猛 則彩隨爛滅 故窑窓設孔 頻規 待其僅熟 取出云 未知其然也 正廟朝禁畫彩燔造 後於白瓷上 陽刻作花卉 凸起燔出矣 不久 復用靑彩”, 『오주연문장전산고』 「고금자요변증설」.

토의 산지를 명시했다는 점이다. 진주와 곤양, 춘천과 양구를 언급하면서 곤양에서 나는 백토가 최고의 품질이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최고의 태토로 평가된 관악산의 백토는 현재 관악산의 주능선 중 하나인 삼성산에 있는 안양 장석광산으로 추정된다.²⁶ 그리고 채색 안료로 사용되는 회청과 반홍을 설명한다. 연경에서 구입해 오는 회청이 원래는 금과 같은 무게로 팔렸으나 이제는 값이 많이 내려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품질 저하를 언급한다. 자줏빛 안료로 사용되는 반홍은 녹반을 가열해서 만든다는 제작 방법도 소개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다양한 채색 안료와 소성 방법을 설명한 후, 정조의 채색자기 금지령에 따른 양각 기법의 사용도 언급한다.

정조는 재위 17년인 1793년 11월 27일 갑번(匣燔)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갑번은 갑발을 씌워 번조한 고급 그릇을 말한다. 연행과 무역을 통해 들어온 청의 도자는 조선 백자의 장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중국풍 선호, 경제적 여유, 사회계층의 변동 등으로 인해 조선 백자는 이전에 비해 더욱 종류가 다양해지고 장식이 많아졌다. 이에 영조 이래 사치품으로 규정된 고급 자기인 청화백자와 갑기는 검소함을 덕으로 여긴 정조에 의해 규제를 받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후 갑번과 화기(畵器) 금지 조치가 계속해서 문헌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정조의 금지 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다.²⁷

정조의 채색자기 금지령에 대해서 이희경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²⁸ “정조께서는 성덕을 지닌 분으로 검약을 숭상하여 갑기(匣器)를 금하고 그림을 그려 넣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부호의 집안에서는 날로 중국과 일본의 자기에 심취하여 서로 앞다투어 사치를 하는데, 사용원에서 만드는 그릇은 모양과 규격이 날로 거칠고 형편없으며 색은 갈수록 검고 탁해진다.”²⁹ 정조가 갑기와 화기 사용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는 화려한 중국과 일본 자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용원 자기의 성형 기술 저하와 채색 기술 쇠퇴를 한탄한다.

실학자들의 조선 자기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³⁰ 우

26 방병선, 앞의 책, p.197.

27 방병선, 『왕조실록을 통해 본 조선도자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pp.265-266.

28 이희경의 조선 백자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저서에서 자세하게 분석했다. 강경숙, 『한국도자사』 (일지사, 1989), pp.438-447.

29 이희경, 진재교 외 옮김, 『설수외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1), pp.159-160.

30 실학자 중 박제가, 이희경, 서유구의 조선 자기에 대한 입장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방병선, 「북

선 이규경의 평가를 들어보자.

대개 우리나라의 자기는 질박하고 견고하다. 그러나 중국 자기나 일본 자기와 비교해 보면 매우 거칠고 열악하다. 중국 자기는 일본 자기의 정묘함만 못하다. 일본 자기는 얇기가 종이와 같고 희기가 옥과 같다. 윤택함이 물 흐르듯 하나, 채색은 다시 중국 자기만 못하다. 단지 주색(朱色)·홍색(紅色)·청색(靑色)·남색(藍色)을 쓰는데 홍색은 중국보다 낫다. 그리고 전적으로 묘금(描金)을 사용한다. 듣자 하니 사람 기름과 모래흙을 섞은 것을 사용해서 매끄럽고 기름기가 흐른다고 한다.³¹

견고하지만 투박하고 거칠다, 이것이 조선 자기에 대한 이규경의 평가이다. 당시 조선은 화려한 채색자기를 생산하지 않았고 대체로 기벽이 두꺼웠기 때문에 화려하고 얇은 중국과 일본 자기를 접했을 때 이런 평가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채색에 있어서는 중국 자기가 일본 자기보다 나은데, 다만 홍색 사용은 일본이 더 낫다고 평가한다. 기형의 세밀함이나 기벽의 얇음, 그리고 기면의 윤택함에서는 일본 자기가 중국 자기보다 우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일본 자기의 묘금 기법을 언급한다. 묘금은 금이나 은으로 기면을 장식하는 기술을 말한다.

실학자들은 심지어 사옹원 자기에 대해서도 혹평을 쏟아낸다. 이희경은 “모양과 규격이 조잡하고 사용하는 재료도 너무 거칠어서 구워내면 터진 것이 절반이고, 보기 싫게 뒤틀린 것 또한 셀 수 없을 정도이다”³²라고 기술 수준 저하를 비판했다. 그리고 박제가 역시 사옹원 자기의 둔중함과 그에 대한 세태의 무감각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현재 사옹원에서 구워낸 그릇이 대단히 정교하다는 칭송을 얻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통통하고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반드시 상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중국 그릇의 흙을 잡는다.”³³

이러한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미감은 사람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학파의 도자 인식, 『추사와 그의 시대』(돌베개, 2002); 방병선, 「조정 박제가·윤암 이희경의 도자 인식, 『미술사학연구』238·239(2003), pp.213-234.

31 “大抵我東瓷器 質朴堅固 然比諸燕窩倭磁 麤劣太甚 中國窰又不如倭窰之精妙 倭窰則其薄如紙 其白如玉 滋潤欲流 而其彩畫 則更不若華窰者 但用朱紅靑藍 而紅勝於唐 又專用金描 聞用人油拌沙土 故滑且膩焉”, 『오주연문장전산고』 ‘고금자요변증설’.

32 이희경, 앞의 책, pp.158-159.

33 박제가, 안대회 옮김, 『북학의』(돌베개, 2003), pp.61-62.

있다. 하지만 실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 당시 조선 자기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 기술 개선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조선의 현실이 조선 자기에 반영된 것이다. 반면 항해(沆瀁) 홍길주(洪吉周)는 박제가를 평하여 중국벽이 있다고 했다. 즉 중국의 학술에 벽(癖)이 있어 우리나라의 습속을 험뜯고 비웃는다는 것이다.³⁴ 이러한 당시의 인물평을 참고하면서 현재 남아 있는 조선 도자들을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규경은 일본 자기에 대해 데라시마 료안(寺島良安)이 편찬한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의 고려 다완 관련 기사를 인용한다. “다완의 이름인 웅천(熊川)은 조선 함경도의 지명이다”라는 부분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규경은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잘못 들은 것이다. 그 다완이 영남 웅천현에서 나왔다는 의미인데 일본 사람들이 함경도 지명으로 오인했다”³⁵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화한삼재도회』는 일본 오사카의 의사 데라시마 료안이 1713년 편찬한 백과사전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126회나 인용되었다. 그리고 이규경은 그의 다른 저서인 『시가점등』과 『오주서종박물고변』에서도 상당 부분 이 책을 활용한다. 그가 이 책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 수 있다.³⁶ 다음의 기사를 보면 이규경이 일본 학문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일본이 비록 섬나라 오랑캐라 불리지만 여타의 오랑캐들과는 매우 다르다. 중국의 문자를 숭상하여 경사자집(經史子集) 외에도 기이하고 궁벽한 책들까지 모조리 구입해 두고 이어서 판각까지 해내니 없는 책이 없다.³⁷

실학자들의 일본 자기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후하다. 이희경은 “일본의 자기는 바탕은 모두 밝고 빛이 나며 그림도 화려하다. 그러나 모양이 모두 우아하지 못한 것은 옛 제도를 본받지 않고 장인의 생각대로만 만들었기 때문이다”³⁸라고 평했다. 그

34 홍길주, 정민 외 옮김,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생각창고』 (돌베개, 2006), pp.186-187.

35 “此倭之誤聽者也 意其茶盃出自嶺南熊川縣 而倭誤以爲咸鏡道地名也”, 『오주연문장전산고』 ‘고금자요변증설’.

36 김방울, 『『五洲書種博物考辨』의 典據 탐색-「金類」를 중심으로』, 『민족문화』55 (2020), pp.451-452.

37 “日本 雖曰島夷 與他蠻甚異 好尙中國文字 經史子集之外 奇文僻書 莫不購置 仍爲版刻 無書不存,” 『오주연문장전산고』 ‘견절주도변증설(經節酒盜辨證說)’.

38 이희경, 앞의 책, p.161.

리고 박제가는 “일본의 풍속은 온갖 기예에서 천하제일이라는 호칭을 얻은 사람이 있으면 비록 그의 기술이 자기보다 꼭 낫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를 찾아가서 스승으로 모신다”³⁹라고 일본의 장인 우대, 기술 우대를 높이 평가했다.

2. 무명이와 회회청의 구별

청화백자는 백자 유약 밑에 코발트 안료를 사용하여 붓으로 문양을 그린 후 투명 유를 씌워 환원염으로 구워 흰 바탕에 아름다운 청색 문양을 떠오르게 한 자기이다. 코발트블루 안료로 도자기 위에 그림을 그리는 착상은 메소포타미아와 중동에서 비롯된 방법이다. 그러나 경덕진에서 탁월한 사용을 보여주었고, 처음 시작한 1320년대 말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경덕진의 청화백자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기 가 되었다. 14세기와 15세기 초 경덕진에서 사용한 청화안료는 풍부한 철산화물과 때때로 약간의 비소, 니켈, 동이 함유된 코발트 광석이었다. 코발트가 풍부한 이 암석은 중동이나 중앙아시아에서 수입되었다.⁴⁰ 따라서 이 코발트 안료를 중국에서는 회회청(回回靑) 또는 회청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회회청은 상당히 고가여서 중국 자체 내에서 유사한 광물을 발굴하려는 작업이 시도되었다. 이를 통해 찾아낸 광물이 무명이(無名異)였다. 무명이에 대해 『천공개물』 「도연(陶埏)」의 ‘백자’ 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발에 그림을 그려 넣을 때의 청색 유약은 모두가 한결같이 무명이만 쓴다. 무명이는 깊은 땅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며 지면에 떠 있다. 깊은 곳이라 해도 3자 정도 파내려 가면 있으며 어느 성(省)이나 직예(直隸)의 땅에도 다 있다. 역시 상중하 등급을 변별해야 하며 사용할 때는 미리 숯불로 태워 빨강게 단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⁴¹ 『천공개물』을 쓸 당시 명나라에서는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넣을 때 이미 무명이를 주로 썼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천공개물』 「도연」 ‘백자’ 조에 부록으로 수록된 ‘요변회청(窯變回靑)’에서는 회청이 무명이와 다른 것임을 밝힌다. “회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서역에서

39 박제가, 앞의 책, p.63.

40 방병선, 『중국도자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9), pp.297-298.

41 송응성, 임동석 역주, 『천공개물』1 (동서문화사, 2015), p.425.

나는 대청(大靑)으로서 그 질이 우수한 것을 불두청(佛頭靑)이라 부른다. 중국에서 상급의 무명이를 유약으로 사용하여 구워낸 빛깔이 대청과 비슷하지만, 대청은 고온을 거치면 원래의 색깔을 그대로 보존하지는 못한다.”⁴² 회청과 무명이가 빛깔은 비슷하지만, 회청은 서역에서 왔고 중국에서 나는 것이 무명이임을 밝힌다.

서유구는 「점용지」에서 『천공개물』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한다. “지금 연경에서 수입해 오는 회청은 모두 무명이를 불에 달궈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무명이를 서역의 불두청이라 여겨 매번 비싼 값을 들여 사오는데, 지금부터라도 그저 무명이만 사와서 안료 만드는 방법대로 불에 달궈 쓰면 비용을 낭비하는 일은 거의 면할 것이다.”⁴³ 중국에서도 회청이 무명이보다 훨씬 비싼데, 조선 사람들이 양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모두 회청이라 여겨 비싸게 구입해 들여오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명이를 저렴하게 들여와 안료 제조 방법에 따라 불에 달궈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 ‘무명이회회청변증설(無名異回回靑辨證說)’에서 양자를 변증한다. 먼저 『본초강목』, 『물리소지』, 『천공개물』, 『규천외승』에 들어 있는 무명이 관련 기사들을 소개한다. 뒤이어서 자기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자기에 청색 안료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당나라 때부터 이미 그랬다. 당 육구몽(陸龜蒙)의 시에 “9월 가을 바람과 이슬에 월주요가 열렸으니, 천 개 봉우리의 비취색을 빼앗아 왔구나.”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증험할 수 있다. 송대에는 여주(汝州)의 청자와 군국(郡局)의 청기(靑器)가 있었다. 당과 송에서 사용한 것은 진짜 회청(回靑)과 석청(石靑)이었다. 신라와 고려 또한 청자를 제작하여 공물로 바쳤다. 고려 충렬왕 때 중서성(中書省)이 청자·사기·옹기 등의 그릇을 요구했는데, 우리나라가 사용한 청색 안료는 곧 중국에서 생산되었다. 왕세무는 “정덕 연간에 비로소 무명이청(無名異靑)을 산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구워내는 청자가 마는 광주 분원에 있다. 자기를 구워낼 때 오로지 회청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무명청이다. 가격이 점차 싸게 되자 가마 관리들이 연경의 시장에서 구입해 왔다. 그러자 그 품질이 점점 떨어졌다. 아울러 무명이를 달궈서 만드는 줄 알지 못하고, 인골을

42 송응성, 앞의 책, pp.434-435.

43 서유구, 앞의 책, pp.328-329.

태워서 만든다고 잘못 전해지고 있으니, 비웃음을 살 만하다.⁴⁴

여기서 이규경은 청자와 청화자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듯이 보인다. 당과 송에서 생산한 자기는 청자이다. 대표적인 가마가 월주요이고 송대에는 새롭게 여주요가 개설되어 양질의 청자를 생산해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회청으로 그림을 그린 청화 백자는 1320년대 원나라에서부터 제작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선시대 광주 분원에서 만들어낸 자기도 백자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왕세무의 말을 인용하여 언급한 무명이청이 명나라 정덕 연간에 산출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정덕 연간은 1506년부터 1521년까지이다. 비로소 이때가 되어서야 중국에서 무명이청이 양산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청화 안료 가격이 내려갔고 조선에서도 연경의 시장에서 안료를 구입해 왔다. 하지만 대량 생산에 따른 오염, 즉 품질 저하가 뒤따르게 되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이규경을 날줄로 그의 선배 실학자들을 씨줄로 엮어, 도자 기술에 대한 이규경의 생각을 살펴보았다. 우선 그가 남긴 기록에서 인용 전거와 그의 생각을 분리해냈다. 인용 전거는 간단히 언급하고, 그의 생각과 논증을 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해 이규경은 재료와 기법, 그리고 쓰임새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자신의 논지를 전개했음을 알 수 있었다. 독서의 방대함뿐만 아니라 논증의 치밀함도 엿볼 수 있었다.

도기 부분에서는 먼저 도토를 설명하고 도기 제작 방법을 제시했다. 중국과 조선의 도토 산지와 각 도토의 특징을 언급한 다음 도토를 정제하는 방법인 징니법과 도토 소성 방법인 증견요법을 소개했다. 조선에서는 도기가 거칠고 수준 낮은 일상 용

44 “按窰畫青彩 自唐已然 唐陸龜蒙詩 九秋風露越窰開 奪得千峯翠色來 於此可驗也 宋代有汝州青窰 郡局青器 則唐宋所用 卽眞回青及石青也 新羅高麗 亦製青窰進貢 高麗忠烈王時 中書省求青砂甕等器 則我東所用青彩 卽中土產之青也 王氏所云 正德間始出無名異青 本朝所播青窰 則在廣州名分院 而燒窰專用回青 而卽無名青也 其價漸歇 窰胥買來燕市 然其品稍下 竝不知以無名異煉製 謬傳燒人骨所成云 足可一哂”, 『오주연문장전산고』 ‘무명이회회청변증설’.

기로 여겨지는데, 중국에서는 이러한 정교한 제작 방법을 통해 자기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의 도기를 생산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이를 통해 조선 도기 제작 기술의 향상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벽돌에 대해서는 선배 실학자들의 저술인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박제기의 『북학의』를 대폭 인용하여 논지를 전개한다. 이미 이들이 벽돌 사용의 실용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선에서는 이를 주목하지 않는다고 한탄하면서 이규경은 이 두 실학자의 뜻을 계승하여 공사(公私)의 보편적 쓰임으로 삼고자 벽돌 제작과 가마 사용법을 기록한다고 밝힌다.

기와에 있어서는 청기와, 자기 기와, 유리 기와의 특징과 제작 기법에 주목한다. 이들 기와에 주목한 이유는 단지 색깔이 있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바람과 비에 마모될 염려가 없어 여러 세대를 견딜 수 있는 기와를 만들고자 함이었다. 흙이 풍부하니 이러한 기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한다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와를 생산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기에 대해서는 역대 중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기록들을 검토한 후 당시 조선의 자기 제작 상황을 분원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백자 태토 산지를 언급한 다음, 조선에서는 주로 청화만을 사용하는 데 반해 중국에서는 다양한 안료를 사용하여 채색자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서로 비교한다. 그러면서 고온의 소성온도에서 안료를 살려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했다. 그리고 정조가 갑기와 화기 사용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는 화려한 중국과 일본 자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사용된 자기의 성형 기술의 저하와 채색 기술의 쇠퇴를 한탄한다. 당시 조선 자기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 자기에 비해 거칠고 투박하다고 저평가했다.

청화 안료에 대해서는 회회청과 무명의 구별을 시도한다. 여기서는 이 청화 안료를 전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조선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저렴하게 좋은 안료를 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변증 과정에서 청자와 청화자기를 혼동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증조부가 서자라서 서출이라는 신분적 제약을 안고 태어났고, 규장각 검서관을 지낸 조부 이덕무와 부친 이광규의 가학을 이었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런 관직을 갖

지 못한 채 평생 초야에 묻혀 지내며 읽고 쓰기를 반복했던 이규경.⁴⁵ 학문적 방법론으로는 고증학적 변증을 사용했지만, 결국 그가 추구했던 목표는 선배 실학자들과 같이 이용후생을 통해 당시 조선 백성들의 삶을 좀더 윤택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주제어 Keywords

이규경 Yi Kyukyung, 오주연문장전산고 *Ojuyeonmunjangjeonsango*, 이용후생 utilitarian welfare, 도기 pottery, 자기 porcelain, 기와 roof tile, 벽돌 brick

투고일 2021년 3월 28일 | 심사일 2021년 4월 23일 | 게재확정일 2021년 5월 10일

45 김방울, 앞의 논문, p.156.

『五洲衍文長箋散稿 *Ojuseonmunjangjeonsango*』

논저

- 강경숙 Kang, Kyungsook, 『한국도자사 *Korean Ceramic History*』, 서울: 일지사 Seoul: Iljisa, 1989.
- 김방울 Kim, Bangwool, 『『五洲書種博物考辨』의 典據 탐색 - 「金類」를 중심으로 An Inquiry on the Authorities of *Ojuseojongbakmulgobyeon* - Focusing on the first part Gold』, 『민족문화 *Minjokmunhwa*』55, 2020, pp.429-462.
- 김채식 Kim, Chaesik,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연구 A Study of Yi Kyukyeong's *Ojuseonmunjangjeonsango*」,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h.D.diss., SKKU, 2009.
- 박성래 Park, Seongrae, 「16세기 중국 기술서적 『천공개물』 펴낸 송응성 Song, Eungseong Writing the 16th Chinese Science Book *Cheon Gong Gaemul*」, 『과학과 기술 *The Science & Technology*』31:4, 1998, pp.72-74.
- 박제가 Park, Jega, 안대희 옮김 Ahn, Daehoe trans., 『북학의 *Bukhakeui*』, 서울: 돌베개 Seoul: Dolbegae, 2003.
- 박제가 Park, Jega, 정민 외 옮김 Jeong, Min et al. trans., 『정유각집 *Jeongyugakjib*』3, 서울: 돌베개 Seoul: Dolbegae, 2010.
- 박지원 Park, Jiwon, 김혈조 옮김 Kim, Hyuljo trans., 『열하일기 *Yeolhailgi*』1, 서울: 돌베개 Seoul: Dolbegae, 2011.
- 방병선 Bang, Byungsun, 「북학파의 도자 인식 The Bukhak-school's Views on Chosun Porcelain」, 『추사와 그의 시대 *Chusa and His Days*』, 서울: 돌베개 Seoul: Dolbegae, 2002, pp.358-386.
- 방병선 Bang, Byungsun, 「초정 박제가·윤암 이희경의 도자 인식 Park Jae-ka and Lee Hee-kyung's Views on Chosun Porcelain」, 『미술사학연구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238-239, 2003, pp.213-234.
- 방병선 Bang, Byungsun, 『왕조실록을 통해 본 조선도자사 *Joseon's Ceramic History through the Annals of Joseon-Dynasty*』,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Seoul: KU Press, 2005.
- 방병선 Bang, Byungsun, 『조선 후기 백자 연구 *Study of Porcelain of the Late Joseon*』, 서울: 일지사 Seoul: Iljisa, 2009.
- 방병선 Bang, Byungsun, 『중국도자사 연구 *Study of Chinese Ceramic History*』, 서울: 경인문화사 Seoul: Kyungin Press, 2019.
- 서유구 Seo, Yugu, 안대희 편역 Ahn, Daehoe ed. and trans., 『산수간에 집을 짓고 *Building Home in the Hills and Rivers*』, 서울: 돌베개 Seoul: Dolbegae, 2006.
- 서유구 Seo, Yugu,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Imwo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trans., 『임원경

- 제지-섬용지 *Imwongyeongjeji-Seomyongji* 3, 서울: 풍석문화재단 · 씨앗을 뿌리는 사람
Seoul: Pungseok Cultural Foundation · Seedbook Press, 2017.
- 송응성 Song, Eungseong, 임동석 역주 Im, Dongseok trans., 『천공개물 *Cheon Gong Gaemul*』1,
서울: 동서문화사 Seoul: Dongsuhbook Press, 2015.
- 아사카와 다쿠미 Asakawa, Takumi, 심우성 옮김 Sim, Wuseong trans., 『조선의 소반 · 조선도자명
고 *Joseon's Soban · Joseon Dojamyunggo*』, 서울: 학고재 Seoul: Hakgojae, 1996.
- 이희경 Yi, Heekyung, 진재교 외 옮김 Jin, Jaegyo et al. trans., 『설수외사 *Seolsuwoisa*』, 서울: 성균
관대학교출판부 Seoul: SKKU Press, 2011.
- 임종수 Lim, Jongsu, 「方以智의 自然觀 : 『物理小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ng I-Zhi's
View of Natu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otes on Principles of Things」, 성균관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M.A.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2005.
- 장남원 Chang, Namwon, 「조선후기 이규경의 도자 인식: 『오주연문장전산고』의 「고금자요변
증설」과 「화동도자변증설」을 중심으로 Late Choson Scholar Yi Kyu-gyong's View of
Ceramics: Focusing on "Demonstrative Discourses on Kilns and Kiln Site of Past and
Present" and "Demonstrative Discourses on Chinese and Korean Ceramics" from his
Ojueonmunjangjeonsango」, 『미술사논단 *Art History Forum*』6, 1998, pp.205-232.
- 홍길주 Hong, Gilju, 정민 외 옮김 Jeong, Min et al. trans.,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생각창고 *19th
Century Joseon Intellectual's Idea Bank*』, 서울: 돌베개 Seoul: Dolbegae, 2006.

Study of Oju Yi Kyukyung's Utilitarian Welfare Viewpoint on Ceramic Technology

ABSTRACT

Kim, Bangwool

This paper surveyed Yi Kyukyung's views on ceramic technologies. First I divided his opinions from citations in his writings. While citation authorities were simply mentioned, I dealt with his views and demonstrations mainly. Throughout this process I came to know he preceeded this opinions collecting and analyzing articles on ceramic materials, technologies and practical uses.

Ojyeonmunjangjeonsango contains some ceramic articles. In this paper I expanded ceramic range, so tried to study roof tile and brick. Because I thought essence of ceramic lies in clay's revival in the flame, and purpose of wares lies in utilities basically.

His dialectics cited many articles from old writings on one theme and added his opinions in the halfway or in the end. Basically while this is the methodology of study of old documents, he tried to change the Joseon realities and upgrade the life qualities of Joseon people with utilitarian welfare.